

# 한국문화교류 소식

1호 2011년 9월 15일 발행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층무빌딩 303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net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 한국어와 태권도의 융합

박갑수 본회 이사 · 서울대 명예교수

요즘 한국문화(韓國文化)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소위 “한류(韓流)”가 세계인을 매혹해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와 가요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문화는 드라마와 가요만이 아니다. 사실은 이들보다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문화가 있다. 그것은 한국어와 태권도다.

한국어는 우리의 민족어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문화다. 인생의 대원칙은 협동에 있고, 이는 언어(言語)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가 없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 문화 자체가 형성될 수 없고, 인간 상호간의 소통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세계 열강은 다투어 자국어(自國語)를 세계화(世界化)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에 우호관계를 수립

하려 한다. 미국의 아메리칸 센터,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같은 것이 이런 예들이다. 미국의 경우는 영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중·고교에서 모든 학생이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습득하도록 함으로 상호이해(相互理解)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구주연합(EU)도 모국어 외에 두 개의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간 우리는 한국어(韓國語) 보급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다행히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 대국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우리말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어는 60여개국, 약 800개 대학과, 8개국 150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교육 프로그램(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은

국가안보,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교류의 증진을 위해 학습해야 할 주요 언어 8개 가운데 한국어를 포함시켜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동남아에서는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중국의 어떤 대학은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기도 하다. 바야흐로 한국어 붐이 일고 있다. 이런 때 마침 정부에서도 “세종학당” 설립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국어 정부 앞장서서 보급하는 것은 언어제국주의(言語帝國主義)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앞에서 언급한 아메리칸 센터나 피테 인스티튜트 같은 기구도 실은 민간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어 보급도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아 좋고, 바람직할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의 대표적인 무예요, 스포츠로 세계화된 우리의 문화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박(手搏), 태견에 소급된다. 일찍이 이는 고구려의 선배(先輩), 신라 화랑의 수련 수단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때엔 무예로서만이 아니라, 스포츠로까지 발전하였고, 근세에 접어들어 대중화하였다. “태권도”란 이름은 현대에 와서 이 전통적인 무예를 스포츠로 정비하며, “태견”과 비슷한 발음의 “밟을 태(踏), 주먹 권(拳), 길 도(道)”자를 써 발과 손을 쓰는 무도(武道)라는 뜻으로 새로 명명한 것이다. 이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며 마침내 세계화되었다.

태권도는 오늘날 192개국에 협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그 인구가 7,000만에 달한다. 태권도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 기술이 뛰어나고, 수련 목적이 훌륭한 데 있다 하겠다. 육체적 수련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호신(護身)에 있어 그 기술이 평화 지향적이고, 정신적 수련의 목적은 예(禮)에 있기에 대상에 따라 충(忠)·효(孝)·경(敬)·성(誠)·신(信)·의(義) 등으로 나타난다. 태권도는 특히 정신적

교육목적이 예(禮)이어서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는다. 정서가 불안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선도하고, 인격적으로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인기인 것이 그 구체적 증거이다.

이 세상에 단일한 민족문화(民族文化)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란 상호 교류되면서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문화교류(文化交流)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며, 문화 발전에 상승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지면 따라서 국가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한국어와 태권도는 궁합이 잘 맞는 우리의 대표적 문화의 한 쌍이다. 태권도는 구령이나 용어가 “차려, 비틀어짜기, 걸어넘기기”와 같이 우리말로 되어 있어 한국어를 쓰지 않고는 경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양에서는 구령을 한국어로 하지 않거나, 도장(道場)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으면 “가짜 태권도”라고까지 한다고 한다. 이렇게 태권도는 한국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를 해외에 보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는 이러한 한국어와 태권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두 문화를 함께 해외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여 문화교류 운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한국어와 태권도가 해외의 각 급 학교에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문화의 교류는 이해와 친선·우호를 다지며 세계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자문화중심(自文化中心)의 폐쇄적 사고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 문화상대주의적(文化相對主義的) 입장에서 가슴을 열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교류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화의 세계화(世界化)는 일방적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게 된다. ■

# 미국에서 온 소식

존경하는 이광규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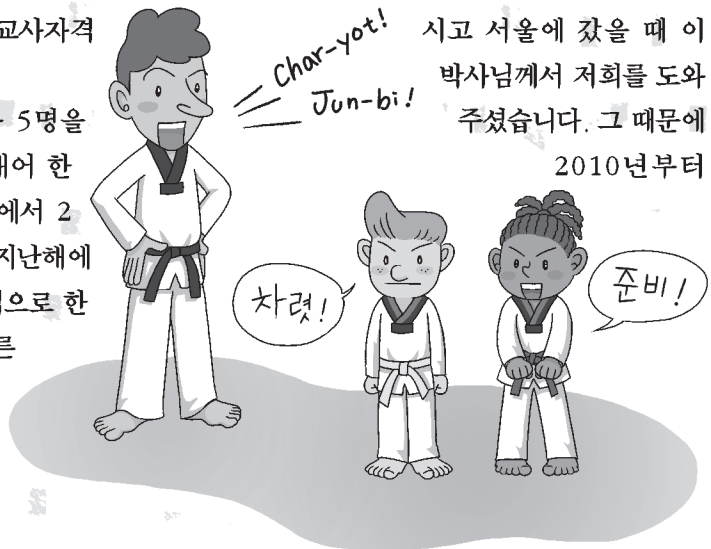
이 박사님께서 이곳 뉴욕 소식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오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Palisades Park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된 것을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학기에 등록된 학생이 겨우 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20명을 세 반으로 나누어 운영을 했는데 황정숙 한국어 교사가 수고를 해서 이번 학기에는 75명이 등록을 하였고 봄 학기에 20명이 더 등록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성공입니다. 황정숙 선생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한인교사 5명을 Rutgers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보내어 한국어교사양성프로그램(잠정적임)에서 2년 동안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뉴저지 주교육청에서 두 분이 정식으로 한국어교사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세 분은 뉴욕주에서 현재 자격증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Palisades Park의 이웃 타운인 Ridgefield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웃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한국어반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한국어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부터 5반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개학을 하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사실 다음 화요일(9월 6일)에 한국어반 개설 기금 전달식을 합니다. 한국정부에서 \$25,000을 지원하고 우리 추진회가 모금한 \$25,000을 전달합니다. 이 돈은 한국어교사 봉급으로 사용됩니다. 2년만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09년 11월에 제가 김영덕 박사님을 모시고 서울에 갔을 때 이 박사님께서 저희를 도와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2010년부터



한국정부의 예산을 따 미국 고등학교에 한국어 반 개설을 위한 예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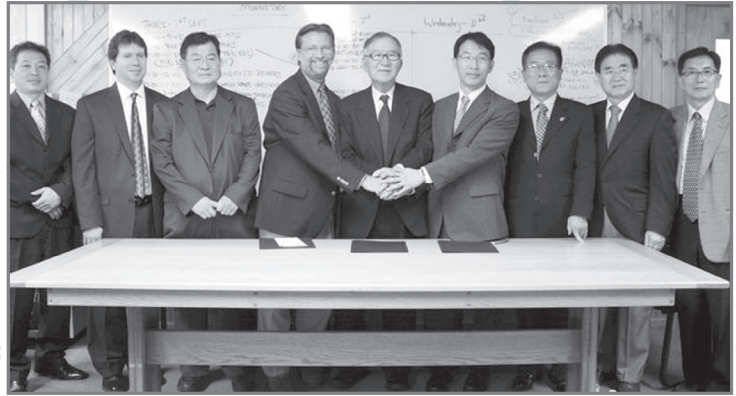
그 동안 김 박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훌륭하신 분을 소개해 주셔서 추진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한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교에 만드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서

는 좋은 한국어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박사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한·중·일 세 나라 간의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수한 한국어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인동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박사님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하시는 일도 소식 전해주시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이선근 올림



미국에서 이선근 씨가 이광규 대표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언급한대로 9월 6일 한국어정규과목채택위원회 김영덕 공동회장(가운데)과 함께 리지필드 교육위원회에 기금 5만5천 달러를 기증하였다.

추신

이광규 박사님께,

편지 감사합니다. 조미경 선생님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Bornx에 새로 생긴 공립학교 Pelham High School of Language and Innovation에서 한국어반 교사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고등학교입니다. 금년에 110명의 신입생을 처음 받았습니다. 4년 후에 한 5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 교장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온 본인 데 한국을 좋아해 설립 첫해에 외국어로 한국어를 제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2주 전에 김영덕 박사님을 모시고 교장 선생님을 예방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이 새로 여신 단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이선근 올림

# “한글 통해 창의적인 학생 만들겠다”

## 한국어 정규 과목 도입 펠햄고 줄리 내리먼 교장



오는 9월 뉴욕 브롱스에 정규 한국어 수업은 물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적용한 공립고교가 생긴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추진회 등 한인 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민족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햄 랭귀지 앤드 이노베이션 고교의 줄리 내리먼(33·사진) 교장은 2005년부터 1년 동안 대전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을 알게 됐다고 한다. 간단한 회화가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그는 한국을 향한 강한 열정의 소유자다.

“한국을 다녀온 뒤에 ‘학교를 직접 운영하면 꼭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펠햄고를 열면서 뉴욕시 교육국에 직접 한국어 정규 과목 도입을 제안했죠.”

올해 9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108명. 4년 후 전교생은 약 450명이 된다. 미국인뿐 아니라 남미·아시아·동유럽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는 것. 태권도 강습도 선택 과목으로는 채택됐다.

“뉴욕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

교에서도 가르치기 쉬운 스페인어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학생들이 색다른 언어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한글 뒤에 숨겨진 역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이 평민들이 쉽게 읽고 쓰도록 한글을 발명했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문제가 있을 때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내리먼 교장은 비단 한국어와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발견한 좋은 문화도 적용시키고 싶다고 한다.

“미국 학생들과는 다르게 한국 학생들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교사가 교실에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반장도 있더라고요. 이 제도를 우리 학교에도 적용합니다. 2~3주씩 돌아가면서 반장(클래스 리더)이 돼 보게끔 해서 평소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소극적인 아이라도 잠재된 리더십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펠햄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조미경 교사는 “우연히 내리먼 교장을 알게 돼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개학하면 ‘김치 크로니클’의 마르자 봉거리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요리 시범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미주 중앙일보(<http://www.koreadaily.com>) 2011-08-19



# 美 학교는

## ‘중국어 1000 · 일본어 700 · 한국어 60개’

이광규 본회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올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국빈방문하여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후 주석이 프렙고등학교를 찾아간 것은 바로 거기에 미국 최초의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 주석은 중국전통무용 등을 지켜본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2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화중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중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공자학원을 세계 곳곳에 열고 있다. 2004년 서울에 맨 처음 개설한 이후 2010말 현재 91개국에 322개를 설치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공자학원도 열어 34개국에 369개를 개설하였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보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 문화원을 열어 자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투트, 미국과 일본의 문화원이 바로 그 예이다. 이들 선진국들이 자국 문화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문화 중에서 핵심은 언어이다. 언어는 문화 그 자체이며 문화를 매개하는 수단이다. 한국어를 이하는 사람은 이미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국과 교류할 준비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우리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1979년 동경문화원을 필두로 12개국 16개소에 문화를 두고 있고 공자학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종학당을 해외에 75개를 설치하거나 인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한국어 보급 예산은 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 예산이 52억 원에 불과하였다.

수년 전부터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가 각각 5,000개, 1,000개, 700여개에 이르는 반면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60여개 교밖에 안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II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험을 치는 학생이 소수여서 자칫하면 제외될 우려도 있다.

최근 드라마, K-팝, 한국음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늘면서 한국어 공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쉽기 그지없다. 치열한 문화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우리 역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략을 만들 때다.■

\* 2011년 8월 1일자 조선일보 칼럼란에 실린 글입니다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 ■ 홈페이지 오픈 [www.ickc-seoul.net](http://www.ickc-seoul.net)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홈페이지가 8월에 열렸다. [www.ickc-seoul.net](http://www.ickc-seoul.net)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사랑하고 연구하며 보급하고자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마당이 되고자 한다. 이 마당에서 알찬 수확을 견으려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론이 이루어지며 자료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만큼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우리 모두의 즐거운 마당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일단 한번 들어와 보세요.

## ■ 유관기관 방문

8월 한 달 동안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국내 태권도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하였다. 정병국 문광부장관과 설동근 교육부차관은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가 대신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자고 다짐하였다.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강원식 국기원 원장도 한국어와 태권도 보급을 함께 하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약속하였다.

### — 〈8월 11일〉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면담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이광규, 김홍기, 김길남 공동대표와 임원들은 8월 11일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TPF) 이사장을 만나 한국어와 태권도의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대순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우리 운동본부 임원들.

### — 〈8월 18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이광규, 김홍기, 김길남 공동대표와 임원들은 8월 18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운동본부의 설립 목적을 설명했다.

### — 〈8월 19일〉 강원식 국기원 원장 면담

이광규 김길남 공동대표 등은 강원식 국기원장을 만나 한국어와 태권도의 보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양 단체는 특히 국내 태권도의 보급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8월 25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면담

우리 운동본부의 임원들은 설동근 차관과 만나 해외에서의 한국어 보급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하였다. 설 차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운동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설 차관은 또한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재를 새로 발간하였으며 계속하여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권 등의 학생들 위한 한국어교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재의 채택과 조안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설동근 차관(중앙),교육과학기술직원들과 우리 운동본부 임원들.

— ICKC 지부 잇달아 창립예정 - 금년 가을 시카고, 내년 초 하와이

늦어도 금년 11월까지 시카고에서, 내년 2월경에는 하와이에 지부가 창립될 계획이다. 우리 본부 공동대표인 김길남 회장이 미국 현지를 돌러보고 보고한 내용이다. 각급 공립학교에 한국어 과목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교사, 학부모, 한인회 간부 등이 함께 모여 한국어 채택을 지역조직 결성에 합의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모국분들이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카고와 하와이 지부 창립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니 참석하실 회원은 본부 사무실로 연락바란다.

한글날 맞이 산행

565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오늘 10월 7일 여주 영릉을 방문하여 세종대왕께 참배하고,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에서 가벼운 산행을 갖고자 합니다.

영릉은 여주를 지나면서 언제 한번 들리지 맘을 먹곤 하지만 발길을 돌리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을 계기로 민족의 어른 세종대왕께 참배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리고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을 향합니다. 해발 850m의 청태산 청정림에 자리잡은 자작나무와 잣나무 숲길에 있는 천혜의 자연 휴양지입니다. 정상까지 목재 테크가 설치되어 있어 편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산채와 횡성의 막걸리도 당연히 걸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숲의 향기를 만끽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온천과 맛있는 쌀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동반으로 오시면 더 좋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회비 10만원, 신청 02-2285-1070 (미리 신청해주셔야 버스를 예약합니다)

- 일시 : 10월 7일(화요일) 오전 8시
- 출발 장소 : 서초구청 앞 (양재역 8번 출구)